

202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8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함

성경: 엡 3:16-19

I.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 엡 3:16.

- A. 겉사람은 몸을 기관으로 삼고, 혼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아 이루어진다 — 고후 4:16.
- B. 속사람은 거듭난 영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새롭게 된 혼을 기관으로 삼아 이루어진다.
- C. 혼 생명은 부인되어야 하지만(마 16:24-25), 혼—생각, 의지, 감정—의 기능은 속사람의 인격인 거듭난 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굴복되어(고후 10:4-5) 새롭게 되고 높아져야 한다.

II.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 엡 3:17 상.

- A.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방식으로 체험하려면 우리는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야 한다 — 엡 3:16.
 1.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속사람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2. 우리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우리의 속사람에 이를 필요가 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다 — 엡 1:19-22.
 3.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더 이룰수록 우리의 내적 존재에 속한 부분들이 더 많이 영 안으로,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 B.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딤후 1:14).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랑으로 그분을 누린다.
- C. 바울은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점유하시고 소유하시고 침투하시고 적시실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 엡 3:17 상.
 1. 우리 마음은 우리의 속부분들의 총체이고, 우리 내적 존재의 중심이며, 우리의 성향과 애정과 기쁨과 갈망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속 각 부분에 공급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 엡 3:17.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 더욱더 정착하시고 거처를 정하시면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을 소유하시며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
 3. 새사람에 관한 에베소서 2 장의 계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이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완전히 전달되시는 것을 의미한다 — 엡 1:22-23.
- D.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장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 되신다 — 엡 3:17 상.
 1.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으로 취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3.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산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인격은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일 것이다 — 갈 2:20.
- E.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이시다 — 엡 3:18 하.
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 이것은 우주의 차원이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차원이다.
 2.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3.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입방체이시므로 우리가 몸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도 삼차원적인 ‘입방체’여야 한다.
- F.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 엡 3:19.
1. 하나님의 충만은 삼일 하나님을 극도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2. 그리스도의 몸은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표현이다.
 3.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그분의 충만한 표현이 되는 정도까지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다.
- G. 참된 교회생활은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산물이다 — 엡 3:18 상.
1. 교회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 그리스도, 곧 우리의 존재 안에 넣어지신 그리스도이다.
 2.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3.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 건축에 관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려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그들의 내적 존재 전체를 소유하시고 점유하시고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그러한 상태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점유하실수록, 우리는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더욱더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 엡 2:21-22, 4:16.
- H.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모든 부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우리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이 더해져 구성된 것이다 — 롬 10:1, 9-10.
1.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존재의 속부분들이다.
 2.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셨다 — 딤후 4:22.
 3. 그 후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 안으로 확장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I.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 엡 3:17 상.
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질화이다 — 히 11:1.
 2.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비밀하고도 추상적인 것이다.
 3. 우리는 신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믿음의 감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